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14 (팩스) 031-579-6041

배포일: 2025.08.04. 보도일: 2025.08.05.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실학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기도, 광복80주년 기념 실학학술대회 개최	6	4	silhak.ggcf.kr www.edasan.org	부 서: 학예연구팀 담 당: 박한별, 김나희 전 화: 031-579-6044, 6014

## “실학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실학학술대회 개최

### ▶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서 실학 관점으로 국가 과제 돌아보는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8월 8일 (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 실학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사실에 근거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서 오늘날 사회문제를 돌아보고, 실학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행사는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2025 신(新) 경제유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과 다산연구소(이사장 김태희)가 주관한다.

### ▶ 광복 80주년 맞아 돌아보는 조선학운동의 역사와 의미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선인들은 나라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광복을 꿈꾸며 ‘조선학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외세의 강압에 맞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 개혁적인 학풍이었던 ‘실사구시’, 즉 ‘실학’을 다시 주목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정신적·제도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선조의 지혜와 의지를 되살렸다.

당시 지식인들은 실학이 지닌 실천적 성격과 제도 개혁의 사상을 통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지켜내고자 했다. 단순한 전통 회복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철학적 자산으로 실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 실학, 국가제도개혁론의 전통

실학의 핵심은 ‘경세(經世)’와 ‘시무(時務)’로, 세상을 경영하고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힘쓰는 데에 있었다. 실학자들은 제도 개혁을 통해 당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반계수록》을 저술해 제도 개혁을 통해 침략자에게 당한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 했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경세유표》를 저술해 '신아구방(新我舊邦)', 곧 오래되고 낡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

이 두 실학자의 저술은 모두 국가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경세론으로, 국가 제도를 바꿔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고민을 담고 있다.

## ▶ 광복의 꿈과 오늘의 국가적 과제

국권을 잃은 뒤 선인들이 꿈꾸었던 광복의 나라는 왕이나 양반의 나라가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의 나라이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화(共和)'의 나라, 곧 '민주공화국'이었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복잡한 과제와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과거의 문제와 새롭게 생긴 사회문제가 뒤엉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본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차별과 혐오, 권력 남용, 그리고 헌법 질서 훼손과 같은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데서 출발했다.

## ▶ 학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제1세션은 '조선학운동의 유산과 실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이지원(한림대), 조성환(원광대), 김문식(단국대), 이경구(한림대) 등 조선학운동과 실학을 연구해 온 역사학·철학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제2세션은 '국가 위기 극복 담론으로서의 실학과 공공성'을 주제로, 정호훈(서울대), 백민정(가톨릭대), 송양섭(고려대), 전성건(경국대) 등 전통시대의 국가제도개혁론과 국가 공공성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참여해 역사 속 공공성 논의의 전통과 의미를 짚어본다.

제3세션은 '대한민국의 위기요인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이다. 앞선 두 세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조명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강동호 공공선연구자협동조합 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김태희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는다.

## ▶ 실학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실천

조선학운동의 유산을 되짚고, 국가 제도 개혁론의 전통을 재조명하며 실학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 멈추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학은 당대의 사회적·제도적 모순을 날카롭게 인식한 사상이자, 이에 적극적이며 근본적으로 대응을 모색한 실천적 움직임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결 방

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는 곧 옛것을 본받아 새롭게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실학 정신을 오늘에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 ▶ 학술대회 참석 안내 및 향후 전망

학술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실학박물관 누리집(silhak.ggcf.kr) 또는 다산연구소 누리집(www.edasan.org)을 참고하거나, 전화(실학박물관 031-579-6044, 다산연구소 010-3263-2590)로 문의할 수 있다.

2024년 '다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학술대회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타난 '신아구방' 문제의식을 오늘날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를 이어받아, 실학 정신을 현대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논의를 한층 발전·심화하는 자리이다.

다산연구소 김태희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과 책임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경기실학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국회 출입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참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미지 3매(별첨)

2. 학술대회 개요 및 일정표 1부

3.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1부. 끝.



▲ 포스터



다산연구소 이사장 김재희

- 일시: 2025년 8월 8일(금) 10: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프로그램

시각	발표
10:00-10:30	인사말: 박석우(다산연구소), 김준희(국회의원) 등 기조강연: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과제 (이건열(백서학회))
10:45-12:15	제1세션: 조선학운동의 유산과 실학의 미래 발표: 조선학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허파 (이희영(서훈대)), 21세기의 실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성환(한양대)) 토론: 최용호(희정), 이재현, 주성환, 김문대(한양대), 이광규(한양대)
14:00-16:00	제2세션: 국가 위기극복 담론으로서의 실학과 공공성 발표: 조선 후기 새로운 국가 구상과 변화 - 「방계수목」과 「경세유표」 (최희준(서울대)), 다산학과 종교적 공공성의 형성 (백연경(거룩학대)), 조선 후기 공신(하림)과 경제학의 국가 (송영성(고려대)) 토론: 김용호(희정), 장호준, 박건정, 송영성, 김성진(경국대)
16:35-17:30	제3세션: 라운드테이블: 대한민국의 위기요인과 과제 발제: 강동훈(공공선연구진흥연구소 연구소장) 토론: 김태하(다산연구소) 외 5명

다산연구소 이사장 김재희



▲ 2024년 학술대회 사진

▲ 초청장

**광복 80주년 기념 실학학술대회**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 실학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 행사일시 : 2025. 8. 8.(금) 10:00~18:00
- 행사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가대상 : 실학·역사·공공정책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시민, 학생 등
- 행사내용 :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선학운동의 유산과 실학 정신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오늘날의 제도 개혁 담론을 다루는 학술대회
- 학술대회 일정(안)

주 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조선학운동의 유산과 실학의 미래	10:00	10:30	개회사 및 인사말	사회 : 송치욱 (인제대) 인사말 : 박석무(다산연구소) 등
	10:30	10:45	장내 정리 및 휴식	
	10:45	11:00	발표 1. 조선학 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발표 : 이지원 (대림대)
	11:00	11:15	발표 2. 21세기의 실학,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 조성환(원광대)
	11:15	12:15	종합 토론	좌장 : 최윤오 토론 : 김문식(단국대), 이경구(한림대)
휴식	12:15	14:00	점심 식사 및 휴식	
2부 국가 위기 극복 담론으로서의 실학과 공공성	14:00	14:15	발표 3.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 구상과 변화 -『반계수록』과 『경세유표』	발표 : 정호훈(서울대)
	14:15	14:30	발표 4. 다산학과 유교적 공공성의 쟁점	발표 : 백민정(가톨릭대)
	14:30	14:45	발표 5. 조선후기 공(公) 이념과 경세학의 국가	발표 : 송양섭(고려대)
	14:45	16:00	종합 토론	좌장 : 김용흠 토론 : 전성건(경국대)
휴식	16:00	16:15	장내 정리 및 휴식	
3부 라운드테이블 <대한민국의 위기요인과 과제>	16:15	17:30	라운드테이블 <대한민국의 위기요인과 과제>	발제 : 강동호 (공공선연구자협동조합 연구소장) 토론 : 김태희(다산연구소) 외 5인
폐회	17:30	17:40	폐회 및 정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2

##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및 저서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근대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며, 주요 저서로 『세계 속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근대문화사상사 연구』, 『미래세대의 동아시아 읽기』 등이 있다.
조성환	원광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와 와세다대학교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월간 공공철학』과 『다시개벽』의 편집인을 역임했고, 현재 『사상계』 편집주간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 『K-사상사』,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 『키워드로 읽는 한국철학』 등이 있으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인류세란 무엇인가?』 등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정호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17세기 복인계 남인 학자의 정치사상, 실학 등 조선후기 국가구상과 정치사상에 관해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조선의 《소학》』, 『교화와 형벌』 등이 있고, 『경민편』, 『대학연의』 등의 역사를 출간했다.
백민정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비롯하여 유교철학과 한국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맹자: 유학을 위한 철학적 변론』, 『정약용의 철학』, 『정약용의 정치사상』 등이 있고, 공저로 『다산 경제학 연구』,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문명전환의 한국사상』 등이 있으며, 『진보적 유학을 향하여』를 공역하였다.
송양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는다』, 논문 「19세기 부세 운영과 향중공론」, 「대동법과 삼정체제」 등이 있다.
강동호	공공선연구자협동조합 연구소장	계간 『신진보리포트』 편집주간, (재)국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재)혁신과미래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공공선연구자협동조합'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개혁과 공공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윤오	前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주력한 학자로, 토지제도와 경제학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양전사업과 토지개혁론』 등이 있다.
김문식	단국대학교 교수	정조와 그 시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으며, '한국실학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1995), 『정조의 제왕학』(2007) 등이 있다.
이경구	한림대학교 교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安東金門 연구』(2007),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2009), 『조선,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 이야기』(2018) 등이 있으며, 최근 『실학, 우리 안의 오랜 근대』(2025)를 출간했다.
김용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조선후기 전공 역사학자로, 주요 논저로는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I - 인조대 정치론의 분화와 변통론》(2006), 《목민고·목민대방》(역서, 2012), 《조선의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 탕평론·탕평책·탕평정치》(2016), 《형감》(역서, 2019), 《대백록》(역서, 2020), 《조선후기 실학과 다산 정약용》(2020), 《동남소사》(역서, 2021) 등이 있다.
전성건	국립경국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약용의 철학사상과 체제개혁론』(2014), 『퇴계학파의 사람들』(2023, 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2013, 공역), 『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2015, 단독) 등이 있다.